

New Product

신제품

LG전자, HDTV 녹화/재생 가능한 HDD 내장 디지털 셋톱박스



LG 전자가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가 내장된 HD(High Definition)급 디지털방송 수신용 '셋톱박스(모델명 : LST-2400)'를 시판한다.

이번에 시판되는 HDD 내장 디지털 셋톱박스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적용되는 저장장치기술을 셋톱박스에 적용한 PVR(Personal Video Recorder) 기술로 방송 프로그램과 방송용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녹화와 재생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이 제품은 고선명(HD)급 디지털 방송을 녹화/재생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제품이다.

또한, 이 제품은 최소 40GB 용량의 HDD를 내장해 별도의 테이프 없이 약 4시간30분 분량의 디지털 방송을 녹화/재생할 수 있다.

여기에는 비디오의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타임 쉬프트 녹화(Time Shift Recording) 기능'을 적용해 외출 혹은 잠시 자리를 비운 후 돌아와서도 일시 정지된 화면부터 재생할 수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방송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다.

이밖에 주요 기능으로는 ▲TV 일시정지 및 재생 ▲동시 녹화/재생 중 현 방송 시점으로 가기 ▲전후 고속 탐색(3배속, 6배속, 20배속, 50배속) ▲슬로우 모션(slow motion) ▲구간 반복 재생 ▲타임쉬프트(Time Shift) 구간내의 일부분만 골라 저장하는 가상 편집 기능(Video clipping) 등이 있다.

LG전자, 15인치 LCD모니터 2종



LG 전자가 TV 및 A/V수신이 가능한 15인치 TFT-LCD모니터(모델명 : FLATRON LCD 568LT)와 Folding(접히는) TFT-LCD모니터(모델명 : FLATRON LCD L1510B)를 출시했다.

최고의 멀티미디어 기능을 지원하는 FLATRON LCD 568LT는 최대 1024×768의 해상도에, 25ms 응답속도, 명암비 350대 1 지원으로 패널성능이 매우 뛰어나다. 또한 15Pin D-Sub, TV, Audio, Video, Mic 등의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입력단자와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 TV시청뿐만 아니라 DVD, VTR, 캠코더, Game기기 등을 모두 연결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형 모니터다.

FLATRON LCD L1510B는, Dual-Hinge(이중접힘)를 채용해 노트북과 같이 얇게 접을 수 있는 모니터로 TFT-LCD모니터의 가장 큰 장점인 '공간절약'을 한층 더 강화, 작업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 주며 이동이 매우 편리하게 설계된 신세대 제품이다.

또한 화면을 90° 수직으로 돌려 일반 문서의 편집형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피봇(Pivot)기능을 동급 최초로 적용했으며, 최대 127개까지 주변기기와 호환이 가능한 USB기능, 별도의 어댑터가 필요없는 빌트인 어댑터(Built In Adaptor)기능을 갖춰 15인치 LCD모니터 중 최고의 사용편의성과 디자인을 갖춘 모니터이다.

삼성전자, 메모리 D램 장착된 HDTV



삼성전자가 메모리를 이용해 HD화면을 재생할 수 있는 55인치 HD급 프로젝션TV를 선보였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선보인 'HD화면 순간재생 디지털TV'는 1Giga Bit(기가비트)의 메모리(D램)를 내장하고 있어 HD화면을 15~60초 전으로 이동, 재생할 수 있는 제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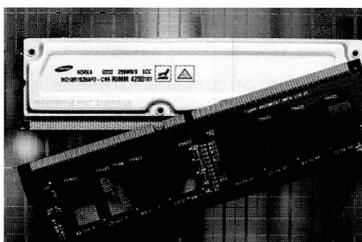
이 제품은 야구, 축구 등 스포츠경기를 보다가 놓친 장면을 간단한 리모콘 조작만으로 최대 60초 전으로 이동하여 감동의 순간을 만끽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10개월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제품 개발에 성공했으며, 'HD디지털 순간 재생(Quick Replay)' 등 핵심 신기술에 대한 특허를 5건 출원한 상태다.

사운드 측면에서는 최고 음질을 재현하기 위해 목재 울림통 스피커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풍부한 중저음용 6인치 우퍼(Woofe)를 TV에 내장하고 있으며, 최대 40W 출력의 Tall Boy 스피커를 선택사양으로 채택, 더욱 현장감 있는 음향을 즐길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

이 제품의 판매가격은 일체형(SVP-55W9HQT)이 530만원대, 분리형(SVP-55W9HRT)이 450만원대이며, Tall Boy스피커는 30만원대이다.

삼성전자, 최고 성능의 램버스D램 모듈



삼성전자가 1초에 4.2GB(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업계 최고 성능의 램버스 D램 모듈 「RIMM 4200」을 출시했다.

삼성전자의 RIMM 4200(Rambus In-line Memory Module)은 하나의 모듈에 2개의 채널을 구현함으로써, 모듈 1개로 초당 4.2GB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이번 제품의 장점은 PC 내에서 1개의 메모리 모듈로도 2개의 메모리 모듈 탑재시와 동일한 성능을 구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PC 원가경쟁력도 50% 이상 크게 향상시킨 것이다.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부터 고성능 PC 및 워크스테이션용 고성능 메모리 제품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0.13μm 공정을 적용한 256Mb, 288Mb 제품을 본격 양산할 예정이며, 향후 576Mb 이상의 대용량 제품도 개발해 시장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이번 제품 출시와 함께 현재 램버스 D램 시장의 주력제품인 1066Mbps(533MHz)급 램버스 D램 시장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세계시장에서 60% 이상의 시장 점유율도 계속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신제품 - 휴대폰

삼성전자, EV-DO폰 등 휴대폰 4종



▲ W CDMA폰



▲ 자동로밍 컬러폰

삼성전자는 최대 전송속도 2.4Mbps의 초고속 무선 데이터 송수신은 물론, 26만 컬러가 구현되는 고화질의 TFT-LCD(박막액정표시장치)를 채용한 EV-DO폰(모델명: SCH-V300)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스트리밍 방식을 채용해 실시간으로 VOD(주문형 비디오) 및 AOD(주문형 오디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기능을 통해 뮤직비디오, 인터넷 방송, 만화, 뉴스 등 다양한 컬러 동영상 컨텐츠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이 제품의 TFT-LCD는 삼성전자가 순수 자체 기술로 개발한 고성능 액정표시장치로, 크기 면에서도 최대 12줄을 한 화면에 표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고싶은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해 놓고 반복 재생도 가능하다.

특히, 휴대폰에 내장된 11만 화소의 고화질 CMOS 카메라로 사진을 편리하게 찍을 수 있고, 찍은 사진을 상대방의 휴대폰은 물론 e-mail로도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사진 이미지를 100장 이상 저장 가능하며, 내장된 디지털카메라가 180도 회전이 가능해, 어떤 위치에서라도 다양한 사진을 편리하게 촬영할 수 있고, 카메라 촬영 영상을 배경화면으로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비동기식 IMT-2000 휴대폰(모델명 : SPH-W1000)도 개발했다.

삼성전자가 개발 및 시연까지 완료한 W-CDMA 휴대폰은 W-CDMA 싱글모드를 지원하는 제품으로, 26만컬러 TFT-LCD를 장착하고 40화음을 지원하는 등 기존 휴대폰의 최고급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비동기방식 IMT-2000 서비스가

본격화 되는 내년 초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한일 월드컵에 맞춰 한·일 자동로밍 휴대폰 두 가지 모델(모델명:SCH-X600/ SPH-X6000)도 출시했다.

한·일 자동 로밍 휴대폰은 CDMA2000 1X 방식의 컬러 휴대폰으로, 선명도가 높은 UFB-LCD를 채용했으며, 40화음 멜로디 기능이 있어 화려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휴대폰 벨소리를 구현할 수 있다. 이 제품에는 삼성전자가 휴대폰 업계 처음으로 선보였던 「화자독립형 음성인식기능」도 탑재했다.

또한, 외국인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화면의 메뉴를 한글 또는 영문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한·영 메뉴변경 기능」도 갖추고 있다.

삼성전자는 커버 교체형 컬러폰(모델명: SPH-X7000)도 출시했다.

삼성전자의 커버 교체형 컬러폰은 풀터 위에 슬라이드 방식의 커버가 있어 다양한 디자인의 커버를 사용자의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만든 제품으로, 사용자의 개성을 마음껏 연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패션을 가미한 신세대 지향적 휴대폰이다.

이번에 출시하는 커버 교체형 컬러 휴대폰은 고화질의 UFB-LCD를 채용해 6만 5천가지 컬러 색상이 지원됨은 물론, 40화음 벨소리를 구현할 수 있는 제품이다.

특히, 커버 교체형 컬러폰의 LED(발광소자)는 발신자에 따라 파랑, 주황, 보라 등 7가지 색상의 화려한 빛은 낼 수 있도록 만들어, LED 색상만으로도 발신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는 획기적인 발신자 확인 방식을 적용했다.



▲ 커버교체폰



▲ EV-DO폰

LG전자, 유기EL 적용폰 등 휴대폰 3종



▲ 외장형 카메라 탑재폰
▼ EV-DO폰



▲ 유기EL 적용폰



LG전자는 동기식 IMT-2000 카메라 내장 컬러폰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2.2인치 초대형 TFT-LCD 액정을 탑재한

cdma2000 1x EV-DO 싸이언 컬러휴대폰(모델명: LG-KH5000)이다.

이 제품은 파격적인 캠코더 스타일의 디자인을 적용해 270도 자유자재로 LCD 액정을 회전할 수 있어 원하는 방향에서 LCD 화면을 보며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

특히 텍스트는 물론, 이미지, 사운드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첨부해 상대의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MMS: Multimedia Message Service)와 긴 문장(최대 한글 500자)까지 한 메시지로 보낼 수 있는 '장문 메시지 서비스'(LMS: Long Message Service) 등 첨단 서비스 기능을 지원한다.

또한 내장된 11만 화소의 고화질 CMOS(Complementary Metal-Oxide Semiconductor) 카메라로 자신의 얼굴이나 원하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어 상대방의 휴대폰을 물론 이메일(E-mail)로도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며, 3단계의 해상도 선택(88x72, 176x144, 352x288 dot), 화질 조절(저, 중, 고), 화면 전환 등의 다양한 기능을 지원한다.

40화음 미디칩(Midi Chip)을 적용해 강력한 오케스트라사운드 노래방 기능의 입체 음향을 감상할 수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한글/영문 메뉴 변경기능으로 영어권

외국인 사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했다.

LG 전자는 또 휴대폰 외부 창에 유기EL 신기술을 적용하고 TFT와 STN의 장점을 반영한 고선명/고화질의 TFD-LCD 액정 채택과 40화음의 디지털 파워 사운드(Digital Power Sound)를 지원하는 듀얼 폴더 타입 싸이언 컬러휴대폰(모델명: LG-SD1100, LG-KP6100)을 출시했다.

이 휴대폰은 자체 발광 디스플레이로 낮은 전압에서도 구동 가능해 전력소모량이 적으며 발광효율이 높아 고화질의 데이터를 즐길 수 있다.

LG 전자는 이번 유기EL 기술을 국내 최초로 휴대폰 외부 LCD에 적용해 유기EL 외부창을 통해 폴더를 열지 않고 발신자 정보표시(Caller ID), 시간확인, 휴대폰 상태파악을 더욱 밝고 선명한 화질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고화질 TFD-LCD(박막다이오드 액정디스플레이: Thin Film Diode Liquid Crystal Display)를 통해 지원되는 3차원 실사(實寫) 그래픽 애니메이션을 채용, 기존 컬러휴대폰 보다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사용환경을 제공한다.

이 제품은 30만 화소 USB(Universal Serial Bus) 방식의 착탈식 외장형 고화질 디지털카메라(옵션)를 부착해 사진을 찍어 문자메시지(SMS)처럼 전송할 수 있는 포토메일 기능을 지원한다.

착/발신 시 반짝이는 양쪽면 LED를 채택한 심플한 디자인의 LGT용 컬러휴대폰(모델명: LG-LP9100)도 출시한다.

이번 LGT전용 모델은 고선명/고화질 디스플레이(Display)를 위해 TFT LCD(박막트랜지스트 액정디스플레이: Thin Film Transistor Liquid Crystal Display)를 채택했으며, IrDA(Infrared Data Association)를 내장해 적외선통신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및 무선 데이터(Data) 송/수신이 가능하며, 40화음 디지털 파워 사운드, 30화소 고화질 디지털 카메라(옵션), 음성 벨 설정기능 등을 제공한다.